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6. 2. ~ 6. 8.

페이지	제목	비고	유형
2-3	무안군, 스마트팜 선도농가 적극 육성	광남일보	인터넷
4-5	'오리 최대 사육지' 전남, 스마트팜 기술개발로 AI 넘는다	뉴시스	인터넷
6	기자재협·농정원, 스마트팜 40개 농장 사후관리 지원	csn축산신문	인터넷
7-8	SAM GREEN AGRO HOUSE, 농업 생산을 위한 최적화된 스마트팜 서비스 실시	한국경제	인터넷
9-14	미래농업 스마트팜, 국산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월간원예	인터넷
15-16	전북형 스마트팜 구현, R&D 역할 중요	전북도민 일보	인터넷
17-18	[주목] 스마트팜, 어떤 기술 더해지나	농수축산 신문	인터넷
19-20	농정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설명회 ... 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서 개최	부산일보	인터넷
21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 우즈벱 현지서 '스마트팜' 확대	매일경제	인터넷
22	농업의 ICT첨단기술을 전수할 첨단기술 교육장을 모집한다	농가재신문	인터넷

무안군, 스마트팜 선도농가 적극 육성

김산 무안군수,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방문 소통행정

입력 : 2019. 06.06(목) 15:30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격려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소통에 따른 의견들을 농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선도농가들을 현장 방문했다.

올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한 일로읍 최한심 구아바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 시설 및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재배경험, 판로확보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김산 군수는 일로읍 김용남 블루베리 재배농가를 찾아 스마트팜 이용 및 농업경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참석한 20여명의 블루베리 작목반 회원들과도 첫 수확한 블루베리를 시식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남 농가는 올해 군으로부터 '첨단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각종 환경센서 및 제어 프로그램, 관비기 및 관수시설 등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을 설치해 농장관리 편리성 뿐 아니라 정밀 비배관리를 통한 블루베리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해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선심성·홍보성 지원이 아닌 우리군 실정에 맞게, 또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계획이며, 스마트팜은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전부터 필요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농민들도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구아바와 블루베리도 고소득 틈새작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올해 시설원에 스마트팜 설치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노지 양파 스마트팜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및 군비 6억원을 투입해 21농가 32ha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 광주/전남

'오리 최대 사육지' 전남, 스마트팜 기술개발로 AI 넘는다

등록 2019-06-04 11:53:58

1차 실증 출하율·소득 ↑, 표준모델 개발 박차



【나주=뉴스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농가에서 무더위에 지친 오리들이 힘겹게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7.22.

wisdom21@newsis.com

【무안=뉴스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특화 축종인 오리를 대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 실증 과정에서 출하율과 출하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팜의 표준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전남도와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AI(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되풀이되는 악성질병과 축산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위기에 빠진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개발에 나서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목표로 지난 2016년 해남 2개 농장에 이어 올해는 나주와 담양 2개 농장에서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작업에 들어간다.

해남 2개 농장 1차 실증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온도, 습도, 정전 및 화재관리 등 오리농장 내·외부환경과 사양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장 안팎의 CCTV를 통해 차단방역과 오리 상태를 자세히 관찰·분석했다.

ICT 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출하율은 96%에서 98%로 2%포인트 증가하고 출하소득도 1회 1240여만원에서 1560여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

암모니아냄새가 6ppm에서 5.4ppm으로 8% 감소하고, 깔짚수분도 60%에서 56%로 4% 감소하는 등 축사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나주와 담양 농가에서 스마트 최적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암모니아냄새가 6ppm에서 5.4ppm으로 8% 감소하고, 깔짚수분도 60%에서 56%로 4% 감소하는 등 축사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나주와 담양 농가에서 스마트 최적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스마트팜 육용 오리의 고온스트레스 경감과 육질 향상을 위해 천연물질을 이용한 오리 사료 첨가제 효과를 규명한다.

또 기존 ICT 기반 환경관리와 제어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도 추진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 중 스마트 축산 최적 표준모델 현장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적 표준 모델이 개발되면 오리 사육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100개 농장 확산시 1회당 소득은 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은 내다봤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구민정 농업연구사는 "오리 사육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스마트팜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오리사육두수는 383만7000마리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자재협·농정원, 스마트팜 40개 농장 사후관리 지원

공통사업 전개

박윤만 gkrdsaks@hanmail.net | 등록 2019.06.05 11:22:06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한국축산기자재협회(회장 송석찬)는 지난달 30일 안성에서 2019년 이사회를 열고, 협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알렸다.

이날 협회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사업 추진에서 농장 지원 사후관리를 위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해 40개 농장에 150만원씩 총 6천만원 AS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농가 지원업체는 가농, 동아지엔지, 리얼팜, 성진냉열, 세인유나이티드, 스카이통신, 아이온텍, 애그리로보텍, 에스씨알, 지원, 파우스, 하나테크, 충청축산 등으로 정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개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구축키로 하고, 구축비용 1억5천만 원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비용은 보조 70%, 자부담 4천500만원이다.

스마트팜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억9천만원(해외 1억1천만원, 국내 8천만원) 지원을 통해 한국관 전시참여와 수출협의체를 구축키로 했다.

SAM GREEN AGRO HOUSE, 농업 생산을 위한 최적화된 스마트팜 서비스 실시

입력 2019.06.05 18:17 | 수정 2019.06.05 18:17



농가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효율적인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중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법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스마트팜은 온도, 햇빛, 습도, 토양 등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가동할 수 있다.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대폭 줄어들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 과정을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가 가능하다.

스마트팜은 자연과 환경의 변수에 따라 작황이 달라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나 한계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업체인 'SAM GREEN AGRO HOUSE'는 스마트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최적화된 스마트팜을 통해 농작물을 대량 생산, 부가가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와 협약 및 농지를 부여 받아 농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플랫폼은 앱기반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제어가 가능하고 농업방식에 또 다른 편의성을 더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모든 농작물들은 기존의 작물들보다 맛과 기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는 러시아에서 2~3배 비싼 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고 있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편리한 사용 방법을 갖춘 솔루션으로 기존 식량 생산방식으로 획기적인 개발에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다. 농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농업컨설팅을 위해 15ha(약4만5천평)에 샘플하우스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SAM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술은 농업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SAM은 자사에서 직접 육종한 품종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는 스마트팜이 가동되어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자사의 스마트팜은 프리미엄 작물 생산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최고급 품질의 식량을 대량 생산하여 전 세계 농업시장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미래농업 스마트팜, 국산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 월간원예 | 🕒 승인 2019.06.03 15:42 | 💬 댓글 0

| (주)우성바이오플랜트 X 농업회사법인 아람 주식회사



<월간원예=이춘희 기자> 국내 스마트팜 선두기업인 (주)우성하이텍은 지난 1991년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하우스의 전동개폐기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이후 전 세계 20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성공시대를 열어왔다. 회사 창립부터 오늘날의 우성하이텍을 있게 한 이해완 대표는 미래농업의 핵심이 될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이 필수적이라 판단했고, 이에 지난 2017년 첨단 유리온실 토탈 솔루션 자회사 '우성바이오플랜트'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기간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에 대해 골몰해온 이해완 대표.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고 치밀한 환경제어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미래농업 스마트팜을 위해서는 유리온실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기존 유리온실이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만들겠다는 이해완 대표의 열망이 실행으로 옮겨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성바이오플린드는 총면적 2.3ha(7000평)에 1.8ha(5600평) 온실을 시공했다.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월 완공된 아람 유리온실은 비용 약 57억 원이 소요됐으며 70% 이상이 우성의 자체 기술로 이뤄졌다.

(주)우성바이오플랜트

우리 기술로 유리온실 만든다

그동안의 국내 유리온실은 건축부터 시설까지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다 나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할 순 있지만, 이를 하나로 잘 엮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에 유리온실이 수십억을 들여도 사후관리가 충분치 못해 유명무실이 되어 버린 케이스가 적지 않다.

우성바이오플랜트 백선열 대표는 이러한 국내 상황을 타계하고, 스마트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원예가 미래농업의 주축을 담당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제어를 통해 식량을 생산하는 스마트팜은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성은 단순히 유리온실을 만드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유리온실을 만드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농가가 큰 비용을 들여 유리온실을 만들었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일이 아니니까요. 우성은 농가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리온실을 계획하고, 시공하고, 재배하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백선열 대표는 농업회사법인 아람 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2.3ha(7000평) 부지에 1.8ha(5600평) 온실을 신축했다.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월 완공된 아람 유리온실은 비용 약 57억 원이 소요됐으며 70% 이상이 우성의 자체 기술로 이뤄졌다.



(주)우성바이오플랜트 백선열 대표. 우성은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 자체기술로 유리온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선열 대표는 우리나라 기술력은 뒤지지 않지만, 이를 본격 생산하기에는 유리온실의 저변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김진수 대표는 우성과의 믿음으로 유리온실 시공을 맡겼으며, 완공 후에도 시설 운용에 관해 우성과 잦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는 유리온실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농장주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우성과의 깊은 신뢰

첨단 유리온실 만들어

농업회사법인 아람 주식회사의 김진수 대표는 1ha (3000평)의 비닐온실에서 토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시작했다. 연암대학교 원예과를 졸업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온실에 대한 의지가 확실했다고.

“유리온실에 대한 꿈은 계속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1년 동안 5만km를 운전하며 전국 각지의 유리온실을 보러 다녔습니다. 각각의 유리온실의 장단점을 배웠죠. 네덜란드도 수차례 다녀오면서 가장 발전된 저만의 유리온실을 그렸습니다. 우성과는 양액재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후 점차 믿음이 쌓여 갔죠. 제가 원하는 유리온실을 구현해줄 회사가 우리나라엔 우성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제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함께 설계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주었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대표는 농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기술에 대한 수용과 끊임없는 연구가 밑바탕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우성바이오플랜트 백선열 대표와 아람주식회사 김진수 대표는 매달 미팅을 가지며, 유리온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유리온실의 시공에 그치지 않고,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김진수 대표는 농산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람은 향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지역 농민과 함께 상생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유리온실은 외부인의 내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예외사원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 눈에 진경을 볼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었다.



유리온실 스마트팜의 핵심키워드는 바로 '생산성'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질의 토마토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김진수 대표는 업종 생산량 목표를 평균 150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간원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형 스마트팜 구현, R&D 역할 중요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02 18:03 | 댓글 0

전북 미래 농생명 R&D의 추진 방향 세미나

전라북도 농업이 농생명·농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먼저 R&D(연구 개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D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동력으로 전북 농생명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미래 농생명 R&D의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농업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강연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형석 실장이 '농식품부의 농식품 R&D 사업소개', '농식품 R&D 기획추진방향' 등을 소개하며 "농식품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과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 개발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김대혁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의 자원 미생물산업 육성 방향', 최주환 전자부품연구원 II응용연구센터 센터장 '혁신농업의 미래 한국형 스마트팜', 허진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동물의약품산업',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농생명소재산업 육성', 장한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은 '글로벌 농식품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제품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에 임했다.

최주환 센터장은 “전북이 한국형 스마트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빅데이터, 지능정보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과 과제의 기획력을 강화하려면 기술인력 확보와 더불어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강열 원장은 “농생명소재 산업의 경우 체질강화와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예타사업 심사 중인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에 전북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Tag #농생명 #신소재 #한국형 #스마트팜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목] 스마트팜, 어떤 기술 더해지나

병해충 진단·재생에너지...운영비 줄고 생산성 오르고

서정학 기자 | 승인 2019.06.07 17:14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	-----	------	---------------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스마트팜의 기능이 신기술 접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스마트팜에 ICT(정보통신기술)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이 더해지면서 생육정보 계측 및 분석, 병해충 진단 기능 등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운영비를 줄이는 기술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마트팜에 어떤 기술이 더해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병해충 진단 및 처방해

최근 스마트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작업자의 영농 의사결정을 돕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 형식이 다양하고 규모가 방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스마트팜 내외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면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스마트팜 내 생육환경 데이터와 작물 자체의 생체 데이터, 기후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빅데이터를 이룬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인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머신러닝 기술은 스마트팜에서 작물과 병해충 데이터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 생육변화를 예측하고 영농 처방을 내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작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된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들 수 있다.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한 2세대 스마트팜은 재배환경과 작물생육·질병 데이터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내부를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 환경으로 조성한다. 또한 잎이나 열매의 색과 모양 변화, 병반 형태 등을 인식해 작물의 병해충 감염을 진단하고 처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현동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2세대 스마트팜은 토마토에 한해 흰가루병, 잎굴파리, 잿빛곰팡이병 등 5개 주요 병해충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며 "현재 다른 작목의 병해충 종류와 감염여부도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병해충 관련 영상 자료를 분석할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술 더해 친환경·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개발

발전소 온·배수열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도 개발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열은 발전소에서 사용되던 냉각수가 열교환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열에너지다. 스마트팜 분야에선 이러한 온배수열을 난방열로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SFS(Smart Farm Solution)융합연구단은 2017년 충남 태안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끌어온 온배수열을 난방열로 사용토록 한 바 있다.

스마트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작물재배로 인한 수익과 에너지 수익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온실 형태 스마트팜의 천장이나 노지에 세운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업계에선 최근 스마트팜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을 더해 낮 동안 모아놓은 태양광 에너지를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팜도 개발하고 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정원, 시설원에 스마트팜 설명회…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서 개최

김덕준 기자 caslopea@busan.com



입력: 2019-06-08 17:53:55 수정: 2019-06-08 17:53:55 게재: 2019-06-08 17:54:09



시도	날짜		주소	비고
강원도	6.11	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3층 대강당)	
충청북도	6.12	수	충청북도 경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세종, 대전
경상북도	6.14	금	대구광역시 북구 도호동 492-4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3층 강당	
경상남도	6.17	월	경상남도 진주시 월야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회의실	부산, 울산
제주도	6.20	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1청사 탐라홀 4층	
전라남도	6.21	금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관 101	광주
충청남도	6.26	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충경리 365) 충남 농업기술원 대강당	
경기도	6.28	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2층 211호	인천
전라북도	7.2	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강당	

지역별 설명회 일정.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시설원에 분야에서 스마트팜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각 지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우 오는 17일 진주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설원에 분야 스마트팜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사업인 △시설원에 현대화 △스마트팜ICT융복합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들과 관련된 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적용기술·장비 안내 △스마트팜 ICT융복합 시설보급 컨설팅 사업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 시설원에 농가가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과 스마트팜 기자재 편람을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한다.

아울러 시설원에 시·군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7~8월에 시·군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시·군 단위 현장설명회는 2020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신청~완료까지의 절차도 안내한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시설원에 농가가 스마트팜 도입부터 이룬 시간 내에 스마트팜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 우즈벡 현지서 '스마트팜' 확대

배윤경 기자 | 입력 : 2019.06.07 20:03:13 | 수정 : 2019.06.07 20:04:42



사진제공 :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SAM GREEN AGRO HOUSE)는 오는 8월 자사의 스마트팜 솔루션인 '에이치팜(H-FARM)'을 활용한 토마토 하우스를 완공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농사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온도 ▲햇빛 ▲습도 ▲토양 등을 측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농장에 설치한 센서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스스로 농장을 관리한다.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州) 아크다리아시(市)와 협약을 맺고 시로부터 220ha 규모의 농지를 받아 밀과 옥수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기존 2개의 토마토 하우스를 10개로 늘린다.

토마토 하우스에 적용된 H팜 기술은 작물 생육환경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등 기존보다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대량생산이 가능한데다 기존 작물보다 맛과 효능이 뛰어나단 평가를 받으면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가 대비 2~3배 높은 가격에 전량 매입하고 있다.

삼 그린 아그로 하우스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팜 기술의 단점을 개선한 서비스로 농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농가 환경부터 경영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전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ICT 첨단기술을 전수할 첨단기술 교육장을 모집한다

농정원, ICT 기반교육시설과 역량 갖춘 실습장 3개소 내외 추가 지정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등록 2019.06.04 11:05:16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ICT 기술 교육에 대한 현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시설 및 교육역량을 갖춘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팜 등 ICT시설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첨단실습 교육기반을 갖춘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통해 첨단기술 활용법을 실습하는 교육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시설원예, 축산 2가지 분야 중심으로 3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바로 영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은 2015년부터 3개소를 시작으로 총 11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올해는 3개소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최근 3년간 5,870명의 청년 및 전문농업인을 양성한 바 있다. 사업참여대상은 ICT 시설장비(환경제어설비, 환경제어시스템 등)와 교육기획·운영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 교육기관 등이다.

농정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신청된 실습장의 ICT 시설, 교육역량 및 교육환경 등을 단계별로 심사하여 우수한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심사 후 2차 전문가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위원회 3단계 심사를 거쳐 지정된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받게 된다. 지정된 ICT 교육장은 강의비, 교재비, 식비 등 교육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